영광군 '장애인 맞춤 복지' 전환…포용 생태계 완성

돌봄 넘어 취·창업 등 자립인프라 구축

취·창업센터 ITQ자격증·직업교육 학습

문화예술행사로 장애·비장애인간 소통

무료급식 예산 증액 복지 안전망 향상

장세일 군수 "장벽 낮추고 기회 넓힐것"





영광군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맞춤형 자립 복지'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며 포용도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교육지원센터' 개관식(왼쪽)과 센터에서 진행된 취업·직장생활 스피치 교육 모습. 〈영광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경제적 지원과 돌봄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문화 향유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맞춤형 자립 복지'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며 포용도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꾸리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창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 참여 확대 ▲생활밀착형 급식 지원 등 3대 핵심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발을 내디딘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교육지원센터'는 단순 보호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적성과 재능을 발굴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경제적 자립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ITQ 자격증반을 비롯해 도자공방 직업교육, 취업·직장생활 스피치, 푸드아트 심리상담사, AI 비즈니스 아카데미 등 실무에 맞춰진 직업훈련을 최대 100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그 결과, ITQ 자격증반에서는 파워포인트 등 4개 부문에서 무려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장애인 스스로 목표를 성취하며 실전형 취업 역량을 입증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경제적 자립과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도 넓어졌다. 오는 13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화합하는 '제8회 영광군 장애인 문화예술행사'가 막을 올린다.

작품 전시와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등이 어우러진 행사는 1회부터 올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만 7천100여명에 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소통·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군은 장애인들이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자립과 사회 참여의 밑바탕이 되는 일상생활 복지망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해결에 고충을 겪는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생활밀착형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했다.

2026년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비를 전년 대비 4천66만원 증액 편성해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 영양 불균형을 막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단발성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복지 안전망을 굳건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장애인이 차별과 소외 없이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리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돌봄과 일자리, 이동권과 건강권을 모두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군정의 중점을 뒀다"며 "지역사회의 장벽은 낮추고 참여 기회는 넓혀 군민 누구나 존중받는 진정한 포용도시 영광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반려견과 가을소풍 떠나요"…내일 나주서 '멍멍피크닉'

금천면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 일원

3㎞ 미션 마라톤 등 참여형 행사 다채

패션쇼·간식 만들기 등 체험부스 눈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을맞이 대규모 반려동물 축제를 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천면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 일원에서 '2026 나주 멍멍피크닉'을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메인 행사인 '미션 마라톤'은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영산강변 산책로 왕복 약 3㎞ 구간을 걸으며 곳곳에 숨겨진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산책의 즐거움과 함께 신체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훈련·위생 미용 전문가 시연을 시작으로 반려견의 개성을 뽐내는 '댕댕 패션쇼', 보호자와의 외모 싱크로율을 겨루는 '닮은꼴 선발대회', 반려견의 집중력을 평가하는 '기다려 참기 대회' 등 무대·부스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수제 간식·인식표 만들기 등 맞춤형 체험 부스와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선보이는 플리마켓이 들어선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나주시는 축제를 발판 삼아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멍멍피크닉이 올바른 반려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반 시설 확충과 입양 지원을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나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완도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본궤도

핵심 행정절차 마무리 내년 8월께 착공

150억 투입 지상 4층 규모 2029년 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조감도)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복합문화도서관은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어린이·종합 자료실과 다목적 공간 등을 두루 갖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조성된다.

군은 2023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적격' 판정과 전남광주시 투자 심사 등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6월에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복합문화도서관은 내년 계약 심사를 거쳐 8월 첫 삽을 뜬 뒤 오는 2029년 2월 준공해 4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시설의 밑그림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조성을 위한 주민 소통도 진행됐다. 군은 지난달 30일 완도 청년센터에서 완도교육지청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청소년 집중 학습 공간 조성, 충분한 주차장 확보, 다채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 제시됐다. 군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독서와 교육,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향유할 수 있는 으뜸 복합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 대불주거단지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郡, 방치 사유지 활용 4곳 33면 확보

주차난 해소·미관 개선 등 효과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5일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방치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4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임시주차장 조성은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차난을 덜고 방치된 사유지의 도시 미관을 개선,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현장 밀착형 행정이다. 특히 막대한 부지 매입비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주민들의 제안을 수렴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군은 우선 삼호지구대 인근(용앙리 1682-11·사진)과 대불주거1로 이면도로(용앙리 1683-2) 등 2곳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주민 개방을 시작했다. 남은 2곳(용앙리 1661-1·1682-9)도 부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개방할 예정이다. 군은 주차장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사유지 활용 임시주차장은 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한 효율적인 모델"이라며 "조성된 4곳의 주차 면수가 33대 규모로 다소 작을 수 있지만 이를 시작으로 주차 공간을 꾸준히 늘려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공정성 상실 정부 의대 선정 밀실행정 규탄"

무안군의회 성명, 대정부 투쟁 예고

핵심 지표 '의료 취약도' 배제 비판

평가기준·심사기록 전면 공개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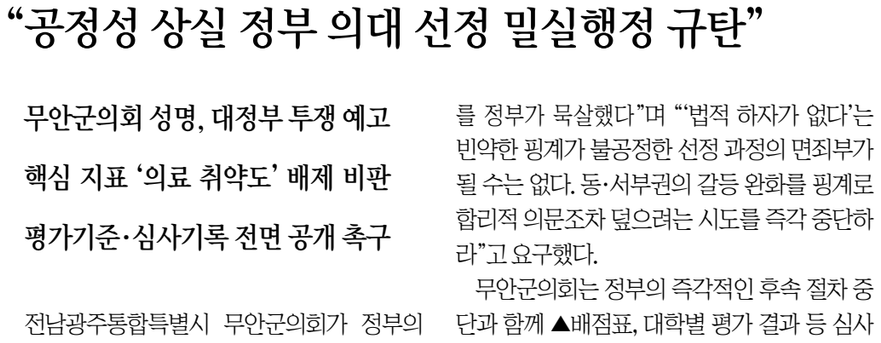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가 정부의 국립의과대학 순천대학교 최종 확정에 대해 공정성을 상실한 졸속·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무안군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1990년 국립목포대의 최초 의대 정원 배정 건의 후 서남권 주민들은 국가의 공정한 판단 만을 믿고 36년을 견뎌왔지만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지역 의료 취약도'를 독립 평가 지표에서 배제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진〉

이어 군의회는 "목포대가 불과 1.3점 차이로 탈락했음에도 심사 기준과 평가 근거 공개 요구를 정부가 묵살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빈약한 핑계가 불공정한 선정 과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동·서부권의 갈등 완화를 핑계로 합리적 의문조차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절차 중단과 함께 ▲배점표, 대학별 평가 결과 등 심사 기록 일체 전면 공개 ▲목포대와 서남권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재검증 절차 도입 ▲섬·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서남권 필수·중증 의료 체계 구축안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임윤택 무안군의회 의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라며 "정부의 결정을 거부하고 서남권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재검증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현장 실습 호응

목포대 사학과 국가유산 보존·관리 체험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유산 모니터링 현장 실무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 대학생들의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5일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교내 삼휴정에서 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대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니터링 체험'을 진행했다. 〈사진〉

교육은 국가유산 지정 체계와 센터의 주요 업무인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등을 소개하는 이론 강의로 시작됐다. 목조 건축물을 위협하는 흰개미의 피해 흔적(배설물, 유시충 등) 점검법을 안내하며 훼손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다뤘다.

현장 밀착형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참여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을 기록했다.

특히 '장비 체험' 항목은 응답자 전원이 5점 만점을 부여했다. 학생들은 "지금껏 몰랐던 문화유산 관리 실무를 생생히 알게 됐다"며 교육 시간 확대와 취업·진로 정보 제공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목포=정해선 기자